

2024 추석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 589장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것 많은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보내 주소서
 3. 먼동틀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후 주가베풀 잔치자리 우리참여 하겠네
- 후렴 :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니다 아멘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주를 믿는 믿음의 가정임을 예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찬송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 편 100편 1-5절 다 같 이

감사의 시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설 교 대대로 찬양받으실 주님 인 도 자

2024년이 시작하여 어느덧 9월 추석, 추수의 계절 추석에 이르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느덧 새해에 시작했던 일들의 윤곽이 나오고, 그 결과도 드러나며 확인되는 때입니다. 곡식과 과일들만 익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해도 그 열매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죠. 가을과 추석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로 창조주 되신 이, 목자 되신 이, 또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을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죠.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직접 만드셨고, 사람을 그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곡식과 과일과 열매들을 거두듯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와 계획도 드러나는 추수의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이 모든 열매와 결과들의 모든 시작이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2024

추 석 가 정 예 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목자에 이끌리는 양들을 보면, 목자가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길을 잃는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확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왕 되시는 주님입니다. 창조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뜻으로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들과 나라들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과 가정들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 그의 왕 되신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통치가 가장 위대하고 또한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맺는 가을,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이 크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목자 되시며 왕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온 땅이 찬양할 주님을 대대로 찬양하고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올해도 이 보혈의 은혜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모든 만물, 또 나와 우리 가족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억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와 주권에 엮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가정 되게 하소서.
4.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욱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